

날짜	기사 제목	주요 내용
1월 28일	俄國情況	[大韓日報東京電] 러시아의 ‘소란’이 지방으로 전파. 폴란드와 핀란드의 반란. 러시아군의 보급 곤란. 시베리아 철도 일부 파괴
	日軍公報	[日軍의 公報] 일본군의 러시아군 격퇴
	俄國大使의 談話	[런던] 주미러시아대사가 청국이 중립을 위반한 증거가 있으며 고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俄國勞働者의 請求條件	러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에 청원한 5개 조건(民權 보장, 자본가의 압제 교정, 언론·집회·종교의 자유 보장, 러일전쟁 중지, 國事犯 대사면)

『황성신문』에서는 여러 나라로부터 얻은 소식을 모아서 러일전쟁을 비롯한 외국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아국(俄國)의 팔대혁명당(八大革命黨)’, ‘아경(俄京)의 혁명운동(革命運動)’, ‘아도혁명운동(俄都革命運動)’, ‘아국 정황(俄國情況)’, ‘아국노동자(俄國勞働者)의 청구조건(請求條件)’ 등의 기사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혁명’ 또는 ‘혁명당’을 직접 거론하였고, 파업에서부터 화재, 군대의 항명, 발포사건 및 사상자, 황제의 피난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과정과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혁명당의 종류나 노동자들의 청구조건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까지 별도의 제목 하에 다루었다. 관심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비교적 자세한 기사의 출처가 『대한일보』로 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음청사』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이 신문은 재한 일본인들이 발행한 것이며, 러시아 혁명의 양상에 대한 관심 또한 상당 부분은 일본인들의 관심에서 유래한 것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청사』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신문에서 다룬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기에서 쓴 것처럼 3종의 신문을 모두 읽었다고 가정한다면, 김윤식은 기사 내용을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다시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러시아의 국내 사정을 서술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김윤식이 해당 일자의 『황성신문』 전체를 온전한 형태로 구해 읽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기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에 대해 기본적인 추론은 가능할 듯하다.

선택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혁명’이나 ‘노동자’라는 말을 피하려 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혁명’은 기사의 제목에서도 사용하였으니 독자 김윤식의 눈에 띄었을 것이지만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노동자’는 폴란드·핀란드 문제를 거론한 기사가 실린 1월 28일자 신문의 같은 면에 언급되었으니 김윤식이 이 단어가 실린 신문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 민권이나 자본가 등의 문제도 이 기사에 함께 거론되었으니, 이 역시 이해하지 못했거나 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속음청사』 전체를 놓고 보면, ‘혁명’이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1900년 8월의 일기에서 “손문의 혁명당”을 거론한 바 있으며,³⁶⁾ 이후에도 “배외혁명”(排外革命)³⁷⁾, “(일본의) 혁명당”³⁸⁾, “청국의 혁명당”³⁹⁾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단어 자체를 특별히 꺼리거나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자어인 ‘혁명’(革命)이 왕조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러시아에서 일어난 ‘내란’에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한편 김윤식이 재구성한 러시아 내부 사정의 면모에는 어느 정도 ‘민란’과 가까운 측면도 엿보이는데, 이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정부의 압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한 점은 유의할 만한데, 이는 김윤식이

36) 『속음청사』상 1900년 8월 6일, p. 534. “청나라의 비밀결사는 그 수가 매우 많다. … 가장 근심할 만한 것은 오직 손문의 혁명당이다.(清國秘密結社, 其數甚多. … 最可憂者, 惟孫文之革命黨.)”

37) 『속음청사』하 1906년 3월 14일, p. 175. “淸國各會匪黨, 爲排外革命之計.”

38) 『속음청사』하 1911년 1월 26일, p. 342. “日本有大獄案, 幸德田太郎等十二人處死刑, 蓋欲除皇室政府, 而爲共和政治, 卽革命黨也.”

39) 『속음청사』하 1911년 10월 16일, p. 352. “見新聞, 淸國革命黨大熾.”

‘이재수의 난’을 체험하면서 정부의 실정과 지방관의 부패 및 무능에서 내란의 원인을 찾은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재수의 난은 정부의 징세 정책 뿐 아니라 천주교의 폐단, 외국 세력과의 갈등, 제주도 백성 내부의 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이었지만, 김윤식의 일기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백성들의 처지는 동정하는 경향의 서술을 취하고 있다. 물론 황제 일가의 피신이나 핀란드 등의 국권 회복 운동과 같은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일기를 통해 신문 기사를 재구성하는 데 이러한 유사성이 일종의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6. 맺음말

김윤식의 일기인 『음청사』를 통하여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정도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었다. 거칠게나마 검토한 결과로는, 김윤식이 러시아에 대해서 편견에 가까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상황에 대한 이해나 관심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김윤식이 『황성신문』과 일본인이 발행한 몇 종의 신문들을 통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왜 관심을 두지 않았나’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꾸어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혁명이 내포한 문제들—특히 노동자·농민과 자본가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거나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것이 김윤식 개인의 상황인지 또는 당시 한국인 일반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우선 그러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제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 혁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일전쟁에 대해 세부적인 전황이나 외국의 반응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대한제국이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인데,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러시아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강제병합의 수순들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에서라면, 패전국 러시아의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민족 왕조인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야 했던 중국과는 사정이 상당히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500년 이상 이어진 왕조를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혁명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대한제국의 지식인 전체의 관심이나 인식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해 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전통적인 경전 및 문장 학습을 통하여 과거제를 거쳐 관료가 되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외래 지식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관심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 인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진전되고 일반화된 논의를 위해서는 김윤식의 일기와 같은 수준의 자료를 갖춘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⁰⁾ 따라서 우선 김윤식의 일기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고,

40) 비슷한 시기에 일기를 남긴 인물로는 윤치호를 들 수 있다. 윤치호 또한 러시아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일기에서는 1905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찾기 어려운 듯하다.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거문도 사건, 청일전쟁,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 주요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영렬(2004),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제에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참조.

참고문헌

【자 료】

- 김윤식(2004), 『운양집』(한국문집총간328), 한국고전번역원.
_____(1971), 『속음청사』(한국사료총서11), 국사편찬위원회.
_____(1958), 『음청사』(한국사료총서6), 국사편찬위원회.

【논 저】

- 권오돈(1960), 『近朝의 漢文學에 對한 一考察: 滄江과 雲養을 中心으로』, 『인문과학』 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문식(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 인식』, 새문사.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국제정치의 상상력』, 창비.
노대환(2012),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대러시아 인식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4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배향섭(2008), 『아관파천 시기 조선인의 러시아 인식』,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유영렬(2004),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임경석 편(2010),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1815~1945』, 논형.
장인성(2002),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근식(2003),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정진석(2008),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허동현(2005), 『개화·일제기 한국인의 러시아 인식에 보이는 고정관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_____(2002), 『1880년대 한국인들의 러시아 인식 양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Vladimir Tikhonov (2014), “The 1905-7 Russian revolution seen from Korea: Korean Periodicals Debate Revolutionary Russia”, *Horizons* 5-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고 접수일: 2014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월 28일

ABSTRACT

The Image of Russia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1905 Russian Revolution Presented
in Kim Yunshik's Diary, *Umcheongsa*

Hwang, Jae-moon*

This essay examines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Russia and its 1905 Revolution by the Korean intellectuals of the time. As one significant case study, this essay pays attention to Kim Yunshik, focusing on his diary *Umcheongsa* (陰晴史). Kim was one of the prominent reformists who planned and executed the enlightenment policy. He was also an active newspaper reader who read and summarized newspapers in his diary through the long period of exile.

In reading the front part of the diary, it is observed that Kim had taken a sort of prejudice against Russia. Russia was often expressed as a greedy and aggressive country, and its image implicit in the text was not at all positive. It is assumed that these negative images had been formed through his inherent knowledge, in which Russia was regarded as a sort of savage tribe. It is clear that these images were maintained during his life, and it was supposed to be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he regarded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ussia as a properly defeated country similar to the opinions exposed in Japanese newspapers. Of course it is obvious that the more important reason wa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that could be obtained by the Koreans of the day. In matters concerning revolution, he seemed to regard it as a rebellion in natural consequence of defeat. So some fundamental elements of revolution, for example the workers' struggle against monarchy and capitalism or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 class, were not mentioned in his diary, though some articles in the newspapers that he read had indeed dealt with these issues. It is unclear whether Kim's case can be seen to be universal, but it can be said that it represents one of the major tendencies of the time in Korea.

